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각에 관한 실증연구

: 임금님표 이천쌀을 사례로

The empirical study on the Local Resource Industry
and the Local Development

이 세 규*

Lee, Se-Kyu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 III. 설문 분석 자료
- IV. 실증분석 결과
-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향토자원을 육성하여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의 영향력 및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드웨어 지원사업(HW)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SW)의 효과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참여주체가 지각하고 있는 효과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토자원 지장산업(local industry)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객관적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설문조사대상은 2009년 향토자원 지장산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 향토자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참여주체와 지역주민 233명이다. 분석결과, 이천시의 향토자원 지장산업의 주체들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 하드웨어 지원사업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 국토정보기술단 전략기획부 이사

논문 접수일: 2013. 1. 14, 심사기간(1,2차): 2013. 1. 15 ~ 2013. 3. 19, 게재확정일: 2013. 3. 19

의 여건과 특색에 적합한 향토자원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종류 및 투자 규모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혹은 사업주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향토자원, 지방산업, 지역발전, 지역주민, 참여주체, 구조방정식모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industry and local development using local resources and to find effective parameters which are the HW's and the SW's support projec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s about the peculiarity of local industry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erifies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using a high-order factor model within SEM.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from 233 residents and participatory agents in Icheon city for rural develop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cognition of the SW's support projects affected successful local industry. However, the HW's support projects are not meaningful significantl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is as follows. In order to make successfully the local industry and local development,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criteria for selection with considerable region given condition. In other word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imate flexibly local resources proposals.

□ Keywords: local resources, local industry, local development, residents, participatory agents, SE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은 지역고유의 향토자원을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생적인 발전전략보다 내생적인 자립형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향토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¹⁾.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지역자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상품의 품질강화와 마케팅

전문화를 통해 특정계층의 소비자를 확보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하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 지역별로 역사적·인문적 가치가 높은 향토자원을 집중적으로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발전의 전략변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방식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성공적인 향토자원 육성사업의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 즉, 향토자원과 지역발전 간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산업화를 추진하여 실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김미희 외, 2011). 따라서 성공적인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이미 하드웨어 지원사업(HW)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SW)²⁾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구성요소가 향토자원 산업화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향토자원과 지역발전의 영향에 대한 인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토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이 향토자원 산업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성에 관한 검증은 미흡한 편으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향토자원 육성사업은 하드웨어 지원사업(기반시설확충)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지역역량강화·홍보마케팅강화)의 예산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계획들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매개변수인 지원사업 효과성에 대한 영향관계와 영향력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토자원과 지역발전에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를 규명하고 측정을 통해 매개변수 간의 인과성을 검증하여 영향관계와 영향력을 밝히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토자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 육성사업에 대한 정책마련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경기도 이천지역의 이천쌀 향토자원 육성사업의 참여주체 담당자와

1)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가 가장 효과적인 농촌개발전략이라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미희 외 2011; Brennan, Flint, & Luloff, 2009; Little, Ilbery & Vatts, 2009; Paneli et al. 2003; Kneafsey, Ilbery & Jenkins, 2001; Ekman, 1999; Bessiere, 1998; Ray, 1998; Haan, 1997. 재인용). 이 같은 개념은 문화경제(culture economics)나 정체성(identity formation)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2) 현재 향토자원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사업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하드웨어 지원사업은 향토자원육성의 기반시설로 생산공기시설, 유통판매시설, 홍보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크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인 역량강화사업(향토사업단운영, 네트워크구축, 주민교육, R&D 연구지원사업)과 상품에 대한 지원사업(홍보마케팅, 축제지원, 공동브랜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다. 임금납표 이천쌀은 2009년 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 상품의 브랜드화와 유통판매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곳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주민과 운영주체는 향토자원과 지역발전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과 지역발전의 연구가설에서 매개변수인 하드웨어 지원사업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각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가설의 설정과 탐색이 용이한 구조방정식모형³⁾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향토자원 구성요소와 향토자원 산업화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와 설문문항을 설계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별 변수에 대한 단일차원성, 신뢰성, 그리고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을 1차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고차 확인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종연구모형을 통해 인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의 확인적 요인분석방법(CFA)과 SPSS 18.0의 AMOS 18.0을 활용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 향토자원 산업화와 지역발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입지적 비교우위성인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접근성은 유리한 지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 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향토자원 육성사업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정체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려는 내생적 발전전략이다(조창완,

3) 구조방정식모형은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분석기법으로 가설검정에 사용되는 통계적인 인과분석을 위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결합한 형태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모형을 의미한다(김계수, 2008).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매개변수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측정지표를 통해 얻어 검증된 요인(개념)들 간의 경험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였다. 즉, 구조방정식모형(SEM)은 새로운 연구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4).

향토자원⁴⁾의 육성사업의 정의는 시·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산업'이다(김미희 외, 2011). 향토자원 지장산업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특화된 산업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 같은 산업화 전략을 통해, 지역 내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높이는 지역발전 정책인 것이다. 향토자원 산업화의 특징은 크게 지역성, 영세성, 전통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산업과 관련된 자원과 기술이 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향토자원 산업화는 대규모 산업으로서 운영되기 보다는 가족 혹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생산·가공·판매 측면에서 세련된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소규모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전문적인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 셋째, 향토자원 산업화는 토착민들로부터 전승·발전되어 상당기간동안 지역의 전통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향토자원은 그 지역 특유의 공예품이나 특산품을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해야 한다(안형순, 2007).

이 같은 향토자원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은 주로 성장거점이론에 기반을 둔 외생적 발전전략을 토대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 이는 지역산업의 획일적인 산업형태로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향토자원 산업화는 지역고유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중요한 내생적 발전전략이 될 것이다(원천식, 2005).

2. 향토자원의 구성요소

① 역사성·지속성

향토자원은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특성이 내재된 자원이며, 지역사회의 역사성이 체화된 유·무형의 지역적 소재와 전통적 소재를 의미한다. 이때 지역적 소재는 기후, 토양, 위치 등 지역의 물리적 요소로 대표되는 차별적 특성을 의미하며, 전통적 소재는 지역 차원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승되고 있는 생활양식이나 관습으로 내재된 특성을 의미한다(조성근·홍윤기·김중문, 2004). 향토자원의 역사성은 일반제품과 차별되는 인문·사회적 가치

4) 향토자원 산업화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향토를 정의하면 '고향의 영토 혹은 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매우 개인의 정서와 생활체험이 가미된 주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도시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비되는 시군 정도의 공간적 단위를 향토라고 할 수 있다(김현호·한표환, 2004).

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내재되어 고가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⁵⁾.

따라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토자원의 역사성이 내재된 배태성이 중요하다(박성용·윤철석, 2006). 또한 상당기간 존속해 온 전통성은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안형순, 2007). 김현호·한표환(2004)은 일반적으로 향토자원이 특정지역의 부존자원이거나 노동력 자본이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역적 연고성과 배태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향토자원의 배태성은 특정지역에 뿌리내려 존속되어 올 수 있는 근거로 지역의 생활습관이나 전통기술의 토대가 되는 특수한 지역적 환경이라 언급하고 있다. 김미희(2009)은 향토자원의 유래와 역사성이 향토자원의 산업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② 존재량

향토자원의 존재량은 타 지역에 비해 향토자원의 확보에 대한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즉, 특정지역이 향토자원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향토자원 산업화에 있어 성공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형순(2007)은 담양군의 대나무 생산량이 국내 4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자원의 생산량이 우월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인형(2004)도 순창군의 고추장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40%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건은 생산 및 가공업체의 설치와 유통망 확보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밖에도 향토자원의 우월한 존재량은 화천의 산천어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강진의 청자문화제와 같은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③ 차별성

특정지역의 향토자원은 다른 지역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요인에 의한 타 지역이나 자원과의 차별성이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향토자원의 차별성은 브랜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주관적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타 상품과 상이한 차별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키게 된다(이윤경, 2009). 이 같은 관점에서 향토자원의 차별성은

5) 일반적으로 향토자원은 지역고유의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물리적 시간경과의 차이가 문화자원의 상품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토자원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에는 전래성, 특이성이 있으며 역사성은 3세대(90년) 이상 우리나라 또는 특정지역에서 전래되어 온 것이다(남치호, 2000).

상품판매와 연계되는 브랜드적 가치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향토자원의 차별성의 개념적 기반을 지역성과 전통성에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성은 다른 국가나 지역이 모방할 수 없는 지역고유의 요소가 된다(박성용, 2006; 김미희 외, 2009; 서철현 외, 2009, 안형순, 2007). 지역성에 기인한 차별성은 브랜드적 가치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특정한 상품에 대해 브랜드적 가치를 구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가치로 측정된다(서철현 외, 2009 재인용). 또한, 조성근(2004)은 지역성에 의한 향토자원의 차별성이 자원의 권리화와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였다.

3. 향토자원의 산업화

향토자원 산업화는 지역차원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화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자원의 생산·가공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와 판매체증이 정보를 쉽게 획득하여 시장의 규모와 시장수요를 예상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권영창, 2004; 이윤경 외, 2009; 이태희·이효선, 2004; 서철현 외, 2009; 배영동, 2004).

그렇지만, 향토자원의 산업화는 일반적인 산업화의 개념에 포괄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향토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산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무형자산의 포함되는 복합적인 범주임을 감안하여 기술적 요소와 비재화의 활용에 기반을 둔 브랜드적 요소를 동시에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철현 외, 2009; 남치호, 2000).

향토자원의 역사성은 항구적 산업화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권리화의 가능성은 지역적 특수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최진옥·양창진(2006)은 해당지역의 역사적 인물자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남치호(2000)은 이 같은 역사성이 지역적 특수성을 의미하며 브랜드화와 권리화의 선결조건임을 지적한 바 있다. 지역적 연고성과 배타성은 지역문화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향토자원의 차별성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고유시장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안형순, 2007).

향토자원의 역사성은 향토자원의 산업화과정에서 소비자의 취향, 구매형태, 시장구조 및 브랜드 등 정확한 시장구조 등을 구분할 수 있게 하며 제품의 브랜드화 및 권리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성용·윤철석, 2006). 제품의 브랜드화 및 권리화는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향토자원 산업화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향토자원의 산업화는 자원의 브랜드화, 권리화, 시장환경 부합성, 타깃시장 규모, 수익성, 항구

적인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에 고착하게 된다. 이는 항시적 산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권영창, 2004).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의 산업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장환경 부합성, 타깃시장규모, 수익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4.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향토자원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들의 효과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행 향토자원 육성사업은 그동안 주로 하드웨어 지원사업(HW)이 중심이었던 지역활성화 정책으로부터 지역의 내생적 역량강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지원사업(SW)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드웨어 지원사업의 예산비율을 50%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여건과 지역특색으로 반영한 향토자원 육성계획의 수립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향토자원 지장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각을 매개변수로 한 영향관계 및 영향력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 지장산업 대상지의 지역주민과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잠재요인들을 측정하여 향토자원 산업화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과 지역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향토자원의 인지도,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각, 그리고 향토자원 산업화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객관적인 관찰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측정된 값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확인요인분석(CFA)을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향토사업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향토자원 산업화의 형성과정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최종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H1 : 향토자원 인지도는 지역역량강화 효과성 지각을 매개변수로 향토자원 산업화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지역주민과 참여주체의 향토자원 인지도는 지역역량강화 효과성 지각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지역역량강화 효과성 지각은 향토자원 산업화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향토자원 인지도는 홍보마케팅강화 효과성 지각을 매개변수로 향토자원 산업화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지역주민과 참여주체의 향토자원 인지도는 홍보마케팅강화 효과성 지각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홍보마케팅강화 효과성 지각은 향토자원 산업화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향토자원 인지도는 기반시설확충 효과성 지각을 매개변수로 향토자원 산업화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 지역주민과 참여주체의 향토자원 인지도는 기반시설확충효과성 지각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기반시설확충 효과성 지각은 향토자원 산업화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지역주민과 참여주체의 향토자원 산업화는 지역발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설문 분석 자료

1. 설문구성 및 조사개요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이천시의 향토자원 지장산업의 참여주체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구성요소 및 산업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의 부문별 인식에 대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9년도에 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 중 하나인 이천쌀 2·3차 식품명품화 사업의 참여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25일(목)부터 10월 28일(일)까지 4일 동안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원은 설문조사 경험이 많은 대학생 1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책임자 1인의 관리·감독 하에 계획된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이천시 관고동 일대 '이천쌀문화축제행사장'을 중심으로 일대의 이천쌀 향토자원 지장산업의 참여주체인 생산자·가공업자·사업추진단·관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조사팀에 할당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목표수량은 350부 중에서 4일 동안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309부였다. 이 중에서 결측값이 있는 27부와 타 지역 응답자 49부를 제외한 233부를 최종 유효설문지로 채택하였다.

<표 1> 설문문항

구 분		설 문 문 항	
향토자원 구성요소 인식도	역사성	- 귀하는 우리 지역 향토자원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량	- 귀하는 우리 지역 우리지역 향토자원의 양이 타 지역보다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	- 귀하는 우리 지역 향토자원이 타 지역보다 차별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토사업 산업화	산업과급효과	- 귀하께서는 향토자원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환경부합성	- 귀하께서는 우리지역 향토자원이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타깃시장규모	- 귀하께서는 우리 지역 향토자원이 다양한 고객들에게 충분히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익성	- 귀하께서는 우리 지역 향토자원이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 보십니까?	
소프트 웨어 지원 사업 효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사업단운영	- 귀하께서는 향토사업단의 운영이 향토사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네트워크	- 귀하께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이 향토사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민교육	- 귀하께서는 주민의 연구회 및 교육사업의 지원이 향토사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 보십니까?
	홍보 마케팅 강화	R&D 연구	- 귀하께서는 생산기술연구 지원사업이 향토사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홍보마케팅	- 귀하께서는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향토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축제지원	- 귀하께서는 축제·체험 지원사업이 향토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하드 웨어 지원 사업 효과	기본 시설 확충 사업	공동브랜드	- 귀하께서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향토사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생산·가공시설	- 귀하께서는 생산·가공시설의 지원사업이 향토산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유통 판매시설	- 귀하께서는 유통·판매시설의 지원사업이 향토산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홍보체험관	- 귀하께서는 홍보관 및 체험관의 지원사업이 향토산업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지역발전 인지도 (10점척도)		- 귀하께서는 우리지역의 향토자원 육성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자료의 특성

설문응답자는 20대 33.9%, 30대 20.6%, 40대 17.6%, 50대 20.2%, 그리고 60대 이상이 7.7%로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남성은 38.2%이었으며 여성은 61.8%로 비교적 특정그룹에 치우치지 않게 설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군은 이천쌀 음식점과 상품판매점 관련된 자영업(21.0%)과 판매서비스직(15.9%)이 36.9%이며, 운영주체의 사무직(17.6%)과 행정·관리직(6.0%), 생산직(3.9%)로 27.5%이며, 지역주민인 전업주부가 7.3%과 기능직이 2.6%로 나타나 비교적 이천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업군이 대상으로 설문되었다. 설문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30.9%, 대재·대졸 54.1%, 대학원졸 이상 6.0%로 설문되었으며, 월소득은 151-200만원 10.3%, 251-300만원 14.2%, 301-350만원 12.4%, 351-400만원 12.9%, 501-1,000만원 15.0%, 1,000만원 이상이 6.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이천쌀 향토사업 지장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향토자원 산업화의 현황에 대해 응답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설문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히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다. 각 관측변수와 이를 통해 구성된 잠재요인은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증된 이후 잠재요인 간의 인과성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신뢰성 검증기준⁶⁾에 근거하여, 향토사업의 지역주민과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KMO값은 향토자원 인지도 0.709, 향토자

6)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값, Bartlett값, 그리고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α)값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한 KMO값은 대개 0.5 이상인 경우에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p-value가 0.1 이하일 때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모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잠재요인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각 관측변수들은 1개의 요인만이 추출되어야 한다.

원 산업화 인지도 0.754, 지역역량강화사업 0.808, 홍보마케팅사업 0.671, 기반시설확충 0.701로 검증되었다. 각 관측변수들은 '고유치 1이상'의 분석모형에서 1개 요인만이 추출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검증결과 는 신뢰성(reliability)분석의 검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크론바흐 알파에 의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내적 일관성 확보에 관한 크론바흐 알파의 기준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0.7이상이면 매우 만족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 인지도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α)의 값이 0.696으로 기준에 약간 못 미치고 있으나 0.7에 근접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측된 잠재변수들은 모두 0.7보다 커서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2> 단일차원성 검증결과

잠재변수		KMO	Bartlett 구형성 검증	고유치 (λ)	설명분산 비율(%)	요인수	크론바흐 α 계수
향토자원 인지도		0.709	$\chi^2 = 124.865(df=6)$ / Sig. = 0.000	1.990	49.745	1	0.696
향토사업 산업화		0.754	$\chi^2 = 189.856(df=6)$ / Sig. = 0.000	2.238	55.961	1	0.756
소프트 웨어 지원사업 효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0.808	$\chi^2 = 305.014(df=6)$ / Sig. = 0.000	2.857	54.544	1	0.791
	홍보마케팅 사업	0.671	$\chi^2 = 129.141(df=3)$ / Sig. = 0.000	1.901	63.362	1	0.710
하드웨어 지원사업 효과	기반시설 확충사업	0.701	$\chi^2 = 185.709(df=3)$ / Sig. = 0.000	2.178	54.449	1	0.721

2)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은 설문조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성만 확보되었다고 해서 관측변수들이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과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확인하게 된다. 내용타당성은 일반적으로 설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구성타당성은 개념타당성(concept validity),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그리고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등을 통해 설문문항의 세부지표들이 각 부문별 최퇴지각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1) 개념타당성 검증결과

본 연구의 잠재요인의 구성개념인 관측변수들의 표준화 요인부하값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⁷⁾을 확보하고 있었다. 개념타당성의 확보는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검증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참조).

<표 3> 구성개념들 간의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잠재요인		관찰 변수	표준화 요인부하값	오차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지수 (AVE)
향토자원 인지도		역사성	0.688	0.405	0.719	0.498
		존재량	0.625	0.455		
		차별화	0.565	0.519		
향토사업 산업화		산업과급	0.727	0.396	0.797	0.507
		시장부합성	0.638	0.445		
		시장규모	0.633	0.389		
		수익성	0.623	0.523		
소프트 웨어 지원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단운영	0.615	0.512	0.792	0.588
		네트워크	0.625	0.474		
		주민교육	0.662	0.406		
	홍보 마케팅 사업	홍보마케팅	0.648	0.489	0.757	0.510
		축제지원	0.662	0.417		
		공동브랜드	0.703	0.393		
하드웨어 지원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생산가공시설	0.703	0.328	0.783	0.569
		유통판매시설	0.749	0.312		
		홍보체험관	0.564	0.488		

7) 개념타당성은 측정된 관측변수의 개념들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요인부하값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표준화 요인부하값이 0.5이상이면 개념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개념타당성 (concept validity)은 도출된 측정값이 관련 변수 간에 이론적으로 합당한 관계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검증에서 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수렴타당성 검증결과

본 연구의 수렴타당성⁸⁾ 검증결과, 개념신뢰도는 향토자원 인지도 0.719, 향토자원 산업화 0.797, 지역역량강화사업 0.792, 홍보마케팅사업 0.757, 기반시설확충사업 0.783으로 검증되었으며 분산추출지수는 향토자원 인지도(0.498)가 약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잠재요인에서 0.5이상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문항은 일반적으로 수렴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판별타당성 검증결과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⁹⁾ 검증결과, 향토자원 인지도(0.498), 향토자원 산업화(0.507), 지역역량강화 지원사업(0.588), 홍보마케팅 지원사업(0.510), 기반시설확충 지원사업(0.569) 등의 분산추출지수가 각 개념간의 상관계수 제공보다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필요한 세부지표의 관측값의 검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제공과 분산추출지수

구 분	상관계수 제공	분산추출지수
향토자원 인지도	향토자원 산업성	0.404496
	지역역량강화	0.173889
	홍보마케팅강화	0.369664
	기반시설확충	0.269361
		0.498
향토사업 산업화	지역역량강화	0.485809
	홍보마케팅강화	0.487025
	기반시설확충	0.434281
		0.507
지역역량강화사업	홍보마케팅강화	0.541696
	기반시설확충	0.563049
		0.588
홍보마케팅사업	기반시설확충	0.501001
		0.569

*은 분산추출지수(AVE)이며, 구성개념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의 제공을 나타내고 있음.

8)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구성타당성 중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의 검증결과가 개념신뢰도 0.7이상과 분산추출지수(AVE) 0.5이상일 경우,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보고 있다(김계수, 2008: 재인용).

9) 구성타당성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대한 검증방법은 크게 Bagozzi(1981)와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검정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검정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 방법은 각 개념별로 산출된 분산추출지수가 다른 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공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 인지도, 향토자원 산업화, 지역역량강화, 홍보마케팅강화, 기반시설확충 등의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적합도¹⁰⁾가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의 검증결과는 $\chi^2=203.300$ (d.f.=109, N=233), $p=.0000$, RMSEA=0.061, GFI=0.906, IFI=0.923 TLI=0.908 CFI=0.920로 도출되었고 C.R.값도 절대값 2.58보다 모두 높아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볼 때, 향토자원 육성사업의 참여주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측정된 관찰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은 적합기준들을 모두 매우 잘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표본자료를 잘 적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표 5〉 참조).

〈표 5〉 확인적 요인분석모형(CFA) 검증결과

구분	관찰 변수	비표준화 요인 부하값	표준화 요인 부하값	표준 오차	C.R.	p값
향토자원 인지도	역사성	1.000	.688			
	존재량	.897	.625	.132	6.773	***
	차별화	.819	.565	.128	6.386	***
향토사업 산업화	산업과급	1.000	.727			
	시장부합성	.829	.638	.098	8.454	***
	시장규모	.765	.633	.091	8.398	***
	수익성	.863	.623	.104	8.275	***
지역역량 강화	사업단운영	1.000	.615			
	네트워크	.985	.625	.133	7.408	***

10) 구조방정식모형(SEM)에서 사용한 모수추정방법은 Maximum Likelihood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을 검증할 경우, 권장되고 있는 모형적합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χ^2 는 $p > 0.05$ 인 경우에는 측정모형은 모집단의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모형적합기준은 RMR<0.050, RMSEA<0.050, GFI>0.900, IFI>0.900, TLI>0.900, CFI>0.900이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자는 RMR와 RMSEA의 적합기준을 샘플크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0.080까지 확대하기도 한다(김계수, 2008; 이학식·임지훈, 2008; 김대업, 2008).

구분	관찰 변수	비표준화 요인 부하값	표준화 요인 부하값	표준 오차	C.R.	p값
	주민교육	1.007	.662	.131	7.717	***
	R&D 연구	1.097	.700	.137	8.005	***
홍보마케팅 강화	홍보마케팅	.959	.648	.117	8.235	***
	축제지원	.920	.662	.110	8.368	***
	공동브랜드	1.000	.703			
기반시설 확충	생산가공시설	1.000	.703			
	유통판매시설	1.116	.749	.122	9.124	***
	홍보체험관	.843	.564	.115	7.328	***

2.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

연구가설의 검정에 앞서, 구조모형의 모형적합성을 확인되어야 한다. 과거에 자주 사용하던 χ^2 값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모형적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표본은 233개로 대표본에 속하므로 χ^2 값 외에도 다른 적합지수들을 보고 모형 적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성 여부의 검증결과는 $\chi^2 = 293.717$ (df=129, n=233, p=0.000이하)이며 RMSEA=0.074도 0.080이하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NFI=0.912, RFI=0.907, IFI=0.921, TLI=0.901, CFI=0.925도 모형적합기준인 0.900 이상으로 매우 잘 적합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6>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연구가설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p값	비고
측정 모형	향토자원 인지도	⇒ 역사성	1.000	.457				
		⇒ 토착성	1.069	.459	.207	5.164	***	
		⇒ 존재량	1.047	.489	.204	5.141	***	
	기반시설확충	⇒ 생산기반시설 지원	1.000	.757				
		⇒ 유통판매시설 지원	.726	.547	.099	7.298	***	
		⇒ 홍보관·체험관 지원	.895	.709	.098	9.096	***	
	지역역량강화	⇒ 사업단운영 지원	1.000	.723				
		⇒ 네트워크구축 지원	.888	.661	.103	8.626	***	
		⇒ 주민교육·연구회 지원	.851	.612	.106	8.065	***	

연구가설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p값	비 고	
	홍보마케팅강화	벤치마킹 지원	.852	.594	.108	7.853	***		
		⇒	홍보마케팅 지원	1.024	.686	.125	8.212		***
			축제활성화 지원	.947	.649	.120	7.880		***
			공동브랜드 지원	1.000	.643				
	향토자원 산업화	⇒	시장규모	1.000	.684				
			시장부합성	.870	.630	.106	8.242	***	
			수익성	.865	.587	.112	7.745	***	
산업과급			.811	.632	.098	8.260	***		
구조 모 형	H1-1	향토자원 인지도 ⇒ 지역역량강화 (+)	1.234	.781	.217	5.679	***	채택	
	H1-2	지역역량강화 ⇒ 향토자원 산업화 (+)	.349	.353	.120	2.920	.003	채택	
	H2-1	향토자원 인지도 ⇒ 홍보마케팅강화 (+)	1.346	.914	.237	5.669	***	채택	
	H2-2	홍보마케팅강화 ⇒ 향토자원 산업화 (+)	.485	.457	.175	2.773	.006	채택	
	H3-1	향토자원 인지도 ⇒ 기반시설확충 (+)	1.309	.823	.224	5.851	***	채택	
	H3-2	기반시설확충 ⇒ 향토자원 산업화 (+)	.124	.126	.129	.956	.339	기각	
	H4	향토자원 산업화 ⇒ 지역발전 인지도 (+)	1.498	.616	.185	8.083	***	채택	

주1: *** p<0.01, ** p<0.05, * p<0.1

주2: C.R. 값이 1.96 이상일 때,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개변수로 한 향토자원 인지도, 향토자원 산업화, 지역발전 간의 세부 경로계수의 C.R. 값과 p-value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모든 경로의 채택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지역역량강화를 매개변수로 한 첫 번째 연구가설은 검정통계량인 C.R. 값과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세부 연구가설인 H1-1 (0.781)과 H1-2 (0.353) 정도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홍보마케팅강화를 매개변수로 한 인과관계의 검증이다. 이때 세부 연구가설인 H2-1 (0.914)과 H2-2 (0.457)은 모두 검정통계량인 C.R. 값과 p값이 만족하였으며, 인과관계도 정(+)의 영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세 번째인 기반시설확충을 매개변수로 한 연구가설에서는 세부가설인 H3-1(0,82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성립하여 채택할 수 있었지만, H3-2(0,12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끝으로 향토자원 산업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연구가설 H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0.616 정도의 정(+)의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채택되었다(〈표 6 참조〉).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향토자원 육성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토자원 산업화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대한 지역주민과 참여주체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향토자원 인식도', '향토자원 산업화', '지역역량 강화', '홍보마케팅강화', '기반시설확충'의 효과성 지각, '지역발전 인식도' 등에 관해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현재 향토자원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 육성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역주민과 참여주체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의 분석결과, 5개의 잠재변수가 모두 단일차원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을 통해 수렴타당성과 내적일관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향토자원과 지역발전 간의 인과관계를 차이로 밝히기 위해 구조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와 연구가설의 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인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연구모형은 모형적합도와 검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를 볼 때, 지역주민과 참여주체는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각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임금님표 이천쌀 향토자원 육성사업의 지역주민과 참여주체는 기반시설확충인 하드웨어 지원사업(HW)보다는 지역역량강화와 홍보마케팅강화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사업(SW)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기반시설확충을 매개변수로 한 향토자원 산업화에 미치는 세부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우선 향토자원의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융통성 있는 투자계획과 운영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향토자원 지장산업의 계획수립에서는 하드웨어 지원사업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각각 50%로 구분하여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지역마다 향토자원의 특성과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성공적인 향토자원의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드웨어 지원사업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예산과 비율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혹은 사업주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 지장산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진행 중인 향토자원 지장산업으로부터 산출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자료구축의 한계로 인해 향토자원 지장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효과성에 대한 인지도를 근거로 간접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원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향토자원 지장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산출결과를 근거로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인형. (2004). 향토자원을 활용한 순창장류산업 육성성공사례. <지방행정>, 9월호: 119-128.
- 권영창. (2004). 유교문화와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휴양도시 건설. <지방행정>, 10월호: 112-117.
- 김계수. (2008).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 김대업. (2008). <AMOS A to Z>. 학현사.
- 김미옥·박병도·이영옥·노경희. (2009). 농촌지역 향토자원의 산업화 지원 전략개발. <시험연구 사업보고서>, 수원: 농촌진흥청.
- 김현호·한표환. (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치호. (2000). 향토지역재산 소재의 평가선정. <안동개발연구>, 11(1) 41-61.
- 박성용·윤칠석. (2006). 향토산업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안동/영주지역을 사례로. <지방행정>, 20(2): 101-134.
- 배영동. (2004). 향토자원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책방향. <안동대학교>, 29-51.
- 서철현·안현영·김용철. (2009). 지역축제의 브랜드가치, 브랜드이미지, 브랜드태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4(3): 147-168.
- 안형순. (2007). 지역자원의 향토산업화 과정 및 참여주체별 역할에 관한 사례연구-대나무신산업과 광양매실산업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0(1): 61-80.
- 원천식. (2005). 향토산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KIET산업경제>, 통권 79호, 산업연구원.
- 이윤경·신규희·황선진. (2009). 브랜드 이미지와 충성도를 높이는 문화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기업, 소비자, 지원대상의 다차원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9(5), 167-179.
- 이태식·이효선. (2004). 단양온달문화축제 브랜드가치 연구평가. <단양국제관광학술심포지엄>, 247-259.
- 이학식·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법문사.
- 조성근·홍윤기·김종문. (2004). 향토자원의 권리화 및 디자인추진전략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8-269.
- 조창환. (2004). 향토자연자원을 활용한 광주전남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의 현황과 과제. <향토자연자원을 활용한 남도문화·관광산업진흥에 관한 토론회 자료>.
- Bagozzi, R. P. (1981).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A Test of Some Key Hypothese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07-627.
- Besiere, J. (1998). Local development and heritage: Traditional food and cuisine as

- tourist attractions in rural areas. *Sociologia Ruralis*, 38(1), 24-34.
- Brennan, M. A., Rlint, C. G., & Luloff, A. E. (2008). Bringing together local 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indings from Ireland, Pennsylvania and Alaska, *Sociologia Rurails*, 49(1), 97-112.
- Ekman, A. K. (1999). The revival of cultural celebrations in regional Sweden Aspects of Tradition and Transition. *Sociologia Rurails*, 39(3), 280-293.
- Fon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Haan, H. de. (1997). Locality, identity and the reshaping of modernity: An analysis of cultural confrontations in two villages. in H. de. Haan & N. Long(Eds.), *Images and realities of rurla life*(pp. 153-177). Assen: Van Gorcum.
- Kneasfey, M., Ilbery, B., & Jenkins, T. (2001). Exploring the dimensions of culture economies in rural west Wales. *Sociologia Rurails*, 41(2), 298-310.
- Little, J., Ilbery, B., & Watts, D. (2009). Gender, consumption and relocation of food: A research agenda. *Sociologia Ruralis*, 49(2), 201-217.

